

##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마을을 꿈꾸다



공미정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23년간 지역사회의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공미정 부장은 2003년에 입사한 뒤 23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해 왔다. 그사이 늦은 밤까지 복지관에 남아 공부하던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마을에는 상부상조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부지런히 한 사람씩 만나서 묻고 살피며 변화를 이끌어낸 노력 덕분이다.

###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지키는 ‘부영이 교실’ 선생님

1993년 익산시 부송동에 영구임대단지가 들어서며 부송종합사회복지관도 함께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섰지만, 한동안 이곳은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곳 중 하나였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방과 후 갈 곳이 없었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다.

2003년 입사한 공미정 부장은 먼저 복지관에 ‘부영이 교

실’을 만들고 아이들을 밤 9시까지 보살폈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005년 어린이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실내 놀이터, 영상관, 컴퓨터실 등을 마련하고, 2008년에는 ‘부송작은도서관’도 열었다. 토요일에는 ‘놀토’ 프로그램을 기획해 소풍을 떠났다. 복지관을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는 곳’으로 바꾼 것이다.

“부영이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생이 커서 아이를 안고 찾아와요. ‘선생님, 아직 여기 계시네요’라며 안부를 묻고, ‘그때 소풍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고 웃지요.”

###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든다

세월이 흐르며 단지의 세대 구성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떠나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사했다. 공미정 부장은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2013년 동료들과 함께 1,612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구 특성, 경제 상황, 심리·정서, 생활 만족도 등을 분석해 보고서로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11세대, 집중사례 182세대, 일반사례 434세대 등 총 627세대의 취약계층을 새로 발굴했다. 전수조사로 발굴한 가구에는 민간 단체와 연계한 경제·의료·교육·주거 지원을 연결했다.

“주민을 알기 위해선 발품을 팔고 자주 찾아뵙는 수밖에 없어요. 평일 낮에는 봉사자와 함께 방문하고 낮에 뵙기 어려운 주민은 저녁이나 주말에 주민과 함께 방문했죠. 힘들었지만 성과가 분명했어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알리고, 복지관 활동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민 간 교류도 더 활발해졌다. 현재 단지 안에는 ‘부송마을행복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신규 입주민 환영과 정보 안내, 단지 내 장터 등을 챙기고 있다. 단지 내 벽화도 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렸다. 공미정 부장은 “주민들 사이에 ‘마을을 우리 손으로 잘 가꿔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요즘 일할 맛 난다”라고 말한다.

### 오래 믿고 돕는 꾸준함으로


현재 공미정 부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등굣길 교통안전, 단지 내 환경 정비,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과 무료 빨래방 지원 등을 맡기고,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마을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웃을 도우면서 자신감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 마을에서 쌓아 온 관계를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쌓이면 심리적 자립으로 이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생활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호남권 유일의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복지관 최초로 ‘아동학대 종료 가정 재학대 예방 사업’의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다. 공미정 부장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한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오래 믿고 돕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일은 몸과 마음을 다 쏟아도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례는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도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바뀌어도, 혹은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기로 해도 큰 의미가 있다며 서로 다독여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려울 때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만 있어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니까요.”

먼저 다가가 묻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공미정 부장의 꾸준함은 지역사회를 더욱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글 이성미



청소년 금융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공미정 부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구호물품 전달식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공미정 부장 (앞줄 오른쪽 세 번째).